



What's up, OITA!

《VOL.54》

2020년

11월 발행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 우리 고향 사진

히메시마 촌



히메코소사
고사기 · 일본서기에도 등장하는
역사가 긴 신사



보리새우
가을, 겨울에는 양식 · 활어,
봄, 여름에는 냉동으로.
365일 즐길 수 있다

히지 정



가이텐 신사
태평양 전쟁의 비참함을 알리며,
매년 전사자를 위한 위령제가 열린다 모습은 히지하면 떠오르는 여름 풍경



멸치 말리기

체코 공화국 주일 특명 전권 대사

오이타 현 지사를 예방

지난 10월 7일에 마틴 톰초 체코 공화국 주일 특명 전권 대사가 오이타 현에 방문하여 지사를 예방했습니다.

체코 공화국은 1920년에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올해 2020년에 교류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톰초 대사는 「오이타와 체코의 교류에는 긴 역사가 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왼쪽부터 오이타 체코 우호 협회 아카마츠 회장,
톰초 대사, 히로세 지사, 이토 부회장

「개인적으로 오이타 현에 온 것은 처음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 매우 마음에 들었다. 꼭 다시 오이타 현에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사는 「교류 10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국내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것이다. 이러한 행사들을 함께 힘껏 추진합시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핫플레이스

오이타

沸騰大分

새로운 관광 유튜브 채널
매주 토요일 19시~ 동영상 공개 중!



Explore Oita Japan
Turn on Closed Caption
Oita - more than just Onsen

日本大分縣旅遊局
字幕請轉on囉
大分不只是溫泉

沸騰大分

日本一のおんせん県おおいた 味力も満載

日本大分縣旅遊局
字幕請轉on囉
大分不只是溫泉

핫플레이스 오이타
자막을 켜주세요
오이타는 온천이 다가 아니다



오이타 현 관광국에서는
관광 유튜브 채널 핫플레이스
오이타를 시작했습니다
沸騰大分(한국어 채널명 :
핫플레이스 오이타).

매주 토요일 19시부터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오이타 현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오이타 현의 사랑거리를 전달하며, 특히 코로나 상
황 속에서도 안심하며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
고 있습니다.

각 동영상에는 영어, 중국어(간체자, 홍콩 번체
자, 대만 번체자), 한국어와 같은 다언어 자막을
제공하여 해외에 계신 분들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 현지 대상으로는 Weibo 계정 「日本大分
縣旅遊局」, WeChat 계정 「日本大分縣旅遊」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꼭 한
번 둘러봐주시길 바랍니다!!

• 채널 구독
• 좋아요
•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ouTube



Weibo



WeChat

1981년에 개관한 다케타 시 역사 자료관은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후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쿠마 켄고가 맡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다케타 시 역사 문화관 · 유학관(由学館)」은 다케타의 역사 · 문화를 계승하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시설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학관(由学館)」의 역사와 명칭의 유래

유학관은 에도시대 1776년에 8대 번주였던 나카가와 히사사다에 의해 만들어진 오카 번의 학교 명칭입니다. 고대 중국의 유학(儒学) 서적인 「예기(礼記)」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기 중 「君子如欲化民成俗、其必由学乎(사람을 육성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문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구를 채택했습니다.

다노무라 치쿠덴이 11살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남기며, 훗날 많은 제자를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오카 성과 성하 마을을 이어주는 현관으로서 역사 문화를 접하고, 알게 되고, 공부하기 위한 시설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전달하는 거점의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오카 번에 대해 배워보자 「오카 성 가이드스 센터」

유학관 안에 있는 가이드스 센터에서는 다케타의 역사 ·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800분의 1 사이즈의 오카 성 디오라마에서는 층암 절벽에 우뚝 솟은 오카 성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카 성 시공 산책(岡城時空散歩)』을 비추면 돌담 위에 건물이 나타납니다.



가이드스 센터에서 공부 한 뒤 오카 성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만화 『분고 오카 성 이야기(豊後岡城物語)』를 바탕으로 한 영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시가키 시어터, 오카 성과 성하 마을의 벽면 지도, 방문객이 직접 추천 정보 등을 적을 수 있는 정보 코너 등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오카 성 디오라마를 보면...

그 사람은 지금? HOW HAVE YOU BEEN ?



제2회
세라 바클리
Sarah Backley 씨
(국제교류원 2017년 7월 ~ 2019년 12월)

NE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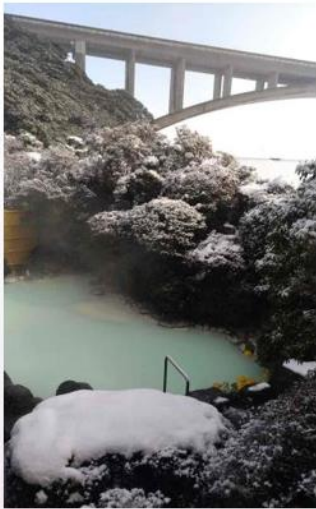
이번 코너에서는 과거에 국제교류원 등으로 오이타의 국제화에 몸담았던 분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오이타에서 여름에 열린 후나이팍칭에서 동료들과 함께

오이타에서 만든 추억

오이타에서 보낸 2년 반을 돌아보면 멋진 친구들, 친절하 동료들, 지금도 그리운 신선한 음식들 그리고 2019년 럭비 월드컵 개최를 준비했던 흥분 등이 떠오릅니다.



베틀푸 「에비스노유」 노천탕

변화가 많은 1년이었지만

럭비 월드컵 일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벌써 1년 이상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한편으로 올해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길게 느낀 전례 없는 해였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영국에 있는 제 친구와 가족은 올해 두 번째로 전국이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 일어난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사람들과 조직이 보여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응성과 회복력, 전 세계 오염 수준의 기록적인 저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8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요리나 그림 등 전부터 해왔던 취미를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오이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지금 도쿄 시모키타자와에 살며 제일 영국 상업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이타 현에서 만들어간 경험, 특히 작년 9월에 베틀푸 시에서 개최된 럭비 자선 이벤트에서 통역을 맡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일을 시작할 기회도 없었다고 생각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쌓아가는 도쿄에서의 생활도 즐겁지만, 오이타는 언제나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쿄 직장 동료들과 온라인 이벤트에서